

Japan Weekly Digest

2012. 9. 01 ~ 2012. 9. 07

① 주간 경제 초점

- 일본 정부 미얀마 인프라 투자 행동계획 책정

② 산업 및 통상 전략

- 경제산업성, 티타늄의 생산비용 절감 지원
- 한국산 저가 휘발유 수입, 일본정유사 수익압박 요인
- 일본의 경쟁력 순위, 10위 이하로 강등

③ 일본기업의 협력 동향

④ 주요 연구보고서 정보



대한일경제협회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je.or.kr>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
있사오며,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(Tel.02-3014-9888)

1 주간경제초점 : 일본 미얀마 인프라 투자 행동계획 책정

- 일본정부가 미얀마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해 향후 5년 정도에 걸친 행동계획을 책정. 금년 10월에라도 양국의 정부관계자 및 경제단체에 의한 협의회를 발족,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할 계획임.
- 미얀마에서는 민주화 진전, 2015년 ASEAN공동체 발족에 대비한 인프라수요가 확대할 것으로 보고, 일본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환경조성을 지원

□ 민·관 연대하에 행동계획 착수

- 일본 외무성과 국제협력기구(JICA), 일본경제단체연합회, 일본상공회의소 등이 8월 미얀마에 관한 민·관 연대의 타스크포스를 창설, 미얀마의 투자환경과 경제협력에 관한 의견교환을 시작
 - 미얀마 측으로부터 정부관계자나 경제단체로 구성된 협의회, 공동이니셔티브를 다음달 중이라도 발족, 지원책의 내용과 시기를 명기한 행동계획에 착수기로 함.

<검토 중인 對미얀마 지원책>

외무성	국제협력기구(JICA)를 이용한 ODA 공여
경제산업성	대형 인프라사업 조사, 경제특구 「티라와」 개발 지원
재무성	증권거래법 정비를 위한 연수 실시, 전문가 지원
법무성	회사법·채권법·노동법 등 조사
총무성	인터넷의 고속화, 해저케이블 정비
국토교통성	운수, 방재, 수자원 관리 분야의 기술협력
국제협력은행	대형 융자 검토
JETRO	일본기업을 위한 미얀마 경제 등의 정보제공
일본무역보험	2년간 5억달러 규모의 무역보험한도 설정, 자원개발 등 중장기 안전 인수 재개
경제단체연합회	경영자들로 구성된 경제위원회 설립, 미얀마시찰단 파견

- 행동계획에는 미얀마 최대 도시인 양곤과 중부 사업도시인 만다레를 잇는 간선철도나 인도양으로의 출입구가 될 다웨이항 등을 포함시킬 방침. 양곤 근교에서 계획하고 있는 경제특구 「티라와」 개발과 수력발전소, 통신망 등에도 주력할 계획임.

□ 인프라 외에, 법제도 정비 및 전문 인력육성 지원도

- 인프라 외에는 상거래 확대에 필요한 법제도 정비지원이나 전문 인력육성도 포함.
 - 미얀마에서는 2015년이라도 증권거래소가 개설될 전망으로, 일본국제협력은행(JBIC)나 일본무역보험을 활용한 금융지원책 외에 의료, 법률, 농업 등의 전문 인력육성도 서두를 계획임.

- 미얀마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둘러싸고 외무성의 정부개발원조(ODA) 등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실시, 검토하고 있음. 민·관 협의회를 신설함으로써 정보의 집약화·공유가 용이토록 하는 동시에 업계의 요망을 반영하기 쉽도록 한다는 것.
- 일본의 대 미얀마 직접투자 누계액은 금년 3월말 시점에서 2억달러로 13번째로 큰 투자상대국임. 미국·유럽의 경제제재 완화나 틴세인 정권의 외자도입정책 추진을 계기로 일본기업들의 주재원사무소 개설 등이 잇따르고 있음.
 - 그러나, 미얀마에서 국회심의중인 외국인투자법 개정이 늦어지고 있어, 미얀마기업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최저자본금의 대폭 인상이나 출자비율 규제가 법안에 포함되는 등 외자유치에 역행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음.

□ 25년 만에 미얀마에 대한 엔 차관 공여 재개

- 일본은 지난 4월 일본-미얀마 정상회담에서 ODA중 대규모 인프라정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엔 차관을 25년만에 재개할 뜻을 표명.
 - 2010년도에 미얀마에 공여한 ODA공여액은 약 30억달러에 그치고 있으나, 장래에는 베트남과 같은 정도의 2,000억엔 규모로 늘릴 구상임.

□ 중국 견제의 의미도 내포

- 일본의 미얀마 지원의 이면에는 군사, 경제 양면에서 존재감을 높이고 있는 중국을 견제한다는 의미도 있음.
 - JETRO에 의하면, 중국은 2011년도 미얀마 수출의 24%, 수입의 30%를 점하고 있으나, 최근에는 미얀마 경제의 중국의존일변도에서 탈피하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음.
 - 중국, 인도에 인접하는 등 지정학적인 중요성도 높아, 일본은 투자확대를 계기로 정치·경제 양면에서 미얀마와의 관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.

② 산업 및 통상 전략

□ 경제산업성, 티타늄의 생산비용 절감 지원

- 경제산업성이 항공기 등에 이용되는 티타늄의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지원에 나섬.
- 경제산업성은 티타늄 부스러기를 재이용하는 기술개발에 대하여 보조해줄 방침으로 티타늄가공회사 등의 개발비 일부가 지원대상임. 필요한 예산조치는 내년부터 5년을 계획하고 있음.
 - 철과 비교하여 40% 가볍고 강도는 2배인 티타늄은 전기자동차나 의료용 등 용도의 폭이 넓어 저비용화로 관련산업의 저변을 넓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.
 - 티타늄은 회소금속의 일종으로 원료인 티타늄광석과 함께, 순도를 높이면서 스폰지티타늄이라는 중간원료를 만든 다음, 이것을 관이나 판 등 합금으로 가공함.
 - 티타늄 합금 가공으로 나오는 부스러기는 재이용이 안되기 때문에 스폰지 티타늄의 15%정도 밖에 최종재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음.
- 부스러기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, 티타늄원료의 조달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경제산업성은 보고 있음.
 - 강도와 가벼움을 겸비한 티타늄은 인공관절 등 의료기기나 해수담수화 장치의 소재로서도 기대를 모으고 있어 세계수요가 연율 7%씩 증가하고 있음.
- 중국 등 신흥국에서 티타늄 광석에 대한 수요가 급증, 가격도 크게 상승하고 있음. 생산비용이 저하되면 티타늄 가격은 하락하기 마련
- 일본에서는 동방티타늄과 오사카티타늄테크놀로지즈 등 2개사가 스폰지티타늄을 생산하고 있음.

□ 한국산 저가 휘발유 수입, 일본정유사들의 수익압박 요인

- 일본의 휘발유 수입시장에서 90%를 점하고 있는 한국산 휘발유의 가격이 일본산 휘발유에 비하여 7%정도 저렴, 일본 정유사들의 수익압박 요인으로 되고 있음.
 - 한국산 저가 휘발유의 일본시장 유입으로, 일본 정유사들이 휘발유가격을 인상하기 어렵기 때문임.
- 한국은 휘발유의 수출비율이 높고 수출가격이 아시아 지역의 지표인 싱가포르 시장에 연동되기 쉬운 반면, 일본은 내수용이 중심으로 가격이 국내 수급동향을 보다 강하게 반영하고 있음.

- 경제산업성에 의하면 4~6월 기간중 휘발유 수입량은 약 88만kl로 전년 동기대비 22% 증가. 한국산 휘발유가 비교적 비쌌던 7월에는 전년동기 대비 1.8%증가에 그쳤으나 다시 증가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
 - 일본내 판매에서 점하는 수입휘발유의 비율은 4~6월기간중 6.5%
 - 일본 정유사들의 정제마진은 7월 이후 확대경향을 보이고 있는데, 현재 리터당 18엔 정도로 가장 낮았던 6월에 비하여 약 2배가 확대
- 한편, 한국산 휘발유 가격이 계속 저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일본 석유회사들의 정제마진이 축소, 수익이 압박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.

□ 일본의 경쟁력 순위, 10위 이하로 강등

- 「2012년판 세계경쟁력보고」에 의하면, 일본은 종합순위가 2년 연속 저하, 작년에 10위를 기록
 - 재정악화에 더하여 원전의 태반이 장기간 정지 상태에 있어 전력공급이 불안정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, 원전 재가동이 늦어질수록 순위가 더욱 저하될 것으로 우려
- 일본의 전력공급체제에 대한 평가는 2011년의 17위에서 36위로 급격히 저하.
- 한편, 일본의 GDP에서 점하는 정부부채 잔고의 비율은 144개 국가·지역중 최하위. 또한 일본 노동시장의 효율성이 낮은 점에 대해서도 동 보고서는 우려를 표함.
 - 반면, 민간기업의 기술혁신력이나 고객우선도 등은 계속 높은 평가를 받음.

3 일본기업의 협력동향

일본기업	발표일자	업종	대상국가/기업	사업형태/내용
덴소	2012.9.3	엔진부품	인도네시아	직접투자/공장건설, 투자규모 약 100억엔
파나소닉	2012.9.3	백색가전	유럽	직접투자/냉장고 및 세탁기 공장 설립, 생산규모는 양제품 합쳐 연간 100만대 정도
동해고무	2012.9.3	자동차용 방진고무	폴란드	직접투자/공장건설, 투자규모 10억엔
아키타이프커뮤니케이션	2012.9.3	광고	중국	직접투자/응용소프트 판매지원을 위한 현지법인 설립
혼다자동차	2012.9.4	자동차	인도	직접투자/현지 합작회사에서 전액 출자회사로 재편
토시바	2012.9.4	차세대전송망	프랑스/알스톰	업무제휴/IT기술활용 기기 및 시스템의 공동개발
고하전공	2012.9.4	전선 및 플라스틱관	인도네시아/SUCACO	자본제휴/합작비율증대(11.81% →20%)
JX일광일석개발	2012.9.4	가스전 개발	미얀마	직접투자/태국기업으로부터 15% 권익 취득
코나카	2012.9.4	신사복	중국/상해삼모기업	자본제휴/현지판매합작법인 설립(절반 출자)
마루베니	2012.9.4	에너지절약 건설제조플랜트	중국/산서태강스텐레스	플랜트수주/수주규모 30억엔
초우리	2012.9.4	알미늄박	중국/오강비락	직접투자/주식30%취득
아테랑스	2012.9.6	여성용 가발	프랑스/LNEB	직접투자/기업매수, 매수규모 6억 2,000만엔
국분	2012.9.7	식품도매	중국/아리바바그룹	업무제휴/인터넷통신판매사이트 가상점포 입점
후지전기	2012.9.7	충전기기	태국	직접투자/공장건설, 투자규모 약 50억엔
미쯔비시자동차	2012.9.7	자동차	중국/광주기차그룹	직접투자/주식취득(17%)

* 자료: 일본경제신문기사에서 정리

4 주요 연구보고서 정보

- (1) 『무역수지, 경상수지의 논점 : 재정수지문제와 연계하여』 다이와종합연구소, 9월4일
*출처:<http://www.dir.co.jp/souken/research/report/japan/mlothers/12090301mlothers.pdf>
- (2) 『새로운 최적소득세 이론과 일본의 소득세제』 일본경제연구센터, 9월4일
*출처:http://www.jcer.or.jp/academic_journal/jer/detail4481.html#2
- (3) 『제조업의 해외이전과 국내 입지의 의의 : 해외진출 촉진은 공동화 회피로 이어지는가?』 토레이 경영연구소, 9월6일
*출처:http://www.tbr.co.jp/pdf/report/eco_g020.pdf
- (4) 『일·중금융원탁회합 보고』 노무라종합연구소, 9월6일
*출처:http://www.nri.co.jp/opinion/kinyu_itf/2012/pdf/itf_201209_8.pdf
- (5) 『행복도 지표로서 경제성장의 질 측정』 미즈호종합연구소, 9월6일
*출처:<http://www.mizuho-ri.co.jp/publication/opinion/eyes/pdf/eyes120905.pdf>
- (6) 『일본경제전망 : 정책효과와 소비세증세전 가수요로 2년 연속 플러스성장』 일본종합연구소, 9월7일
*출처:<http://www.jri.co.jp/MediaLibrary/file/report/japan/pdf/6301.pdf>
- (7) 『성장력 강화를 위하여 : 일본경제의 과제』 일본은행, 9월7일
*출처:http://www.boj.or.jp/announcements/press/koen_2012/data/ko120906a1.pdf